

명사칼럼

급변하는 세계와
우리들의 자세

장만채
순천대학교 총장
061-750-3001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거나 '고인 붉은 썩는다' 말이 있다. 이 속담들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꽤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음엔 틀림이 없으리라.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들은 이 속담들에 대해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온 탓도 없지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속담들이 남아내고 있는 인식과 지향의 정당성에 기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이 속담들 속에는 '이 세계의 본질과 변화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바, 그 인식의 정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실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산도, 우리 인간의 사회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산리만상과 개개인들도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점에서 변화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변화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리 든다. 때로는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마치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요즘 세상은 말세야!',

'옛날이 좋았어!'와 같은 말들은 모두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 생겨난 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속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한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自認)한 것에 불과하다.

바로 우리들의 몸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두고 도리어 변한 현실과 세계를 탓한 것이라고 하겠다.

흔히 많은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그것은 가정이나 학교의 교육이 잘못된 탓'이라들 한다. 그런 점이 없지 않으리라.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에 비해 이기적이거나 또는 전체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것

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젊은 이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꼭 잘못된 교육의 탓만은 아니다.

근대 이전의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다. 그때에는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실이었으며, 농사를 짓는데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다. 그 시절에는 새로운 기술보다는 오랜 경험이 농사를 잘 짓는데 훨씬 더 유용했으며, 젊은이들이 농사를 잘 지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즉, 변화가 심하지 않은 농경사회에서는 어른들의 많은 경험은 소중한 가치 있는 지식이었으며, 그러기에 젊은이들이 경험 많은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위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은 어떠한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옛말이 되고 말았다.

'하루에도 강산이 수십 번 변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 주변과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호출기(빠빠)'의 사용 방법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핸드폰'이 나와, 그 신기하고 새롭다던 '호출기'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좀 과장하자면,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새롭고 편리하다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신기술이 하룻밤이 지난 오늘날에는 부용지불로 천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실상인 것이다.

이렇듯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어른들의 경험은 젊은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삶을 옥죄는 칼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나를 포함하여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라고 권유

또는 강요하고 있다.

우리 부모들은 이것이 훨씬 바람직한 삶의 형태이거나 생활방식이라고 믿고 있으며, 우리들에게는 맞는 말이기도 했다.

즉, 우리들은 책을 많이 읽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높으로써 지식을 습득하거나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며, 또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의 본질은 변화이며, 오늘날은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분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일...

실사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니, 그보다는 인류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새롭게 변할 미래의 세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나갈 방향을 정당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은 대부분 규격화된 제품을 기술과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아날로그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오늘날처럼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보편적 가치보다는 자기만의 개성과 고유한 가치를 실



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제는 신기술과 신상품의 개발도 개개인의 기호와 취미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아날로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은 디지털 세대와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신기술이나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반면에 젊은이들의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발상, 그리고 그들의 욕망은 부지기처럼 지닌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리가 그 원동력을 기꺼이 지지할 때 국가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존재의 본질과 변화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했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정당성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길은 바로 우리와 다른 감각과 지향과 욕망을 가진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나아가 그들이 바울 것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일인 것이다.

| 기술표준 2008.10